

허정무호 골키퍼 엔트리 고민되네

이운재 부진에 '제3의 골키퍼'로 김병지·유현 등 부각

“3명의 골키퍼 엔트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거미손’ 이운재(37·수원)의 경기력 논란과 그에 따른 ‘2인자’ 정성룡(25·성남)에 대한 스포트라이트.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축구대표팀 코칭스태프의 시선은 말 그대로 우려와 고민의 이중주다.

지난 11일 소나타 K-리그 2010 7라운드 강원-경남 경기가 치러진 춘천종합경기장에는 축구대표팀의 김현태 골키퍼 코치와 박태하 코치가 관중석에 자리 잡고 관전했다.

김 코치는 “오늘 특별한 K-리그 경기도 없고 해서 바람 쐬는 기분으로 왔다”면서 웃었다. ‘혹시 김병지를 보러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병지도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오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해요”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운재 논란’으로 넘어갔다. 김 코치는 우선 “최근 언론에서 이운재를 너무 깎아내리고 있다. 이운재 논란이 계속되면 솔직히 정성룡도 부담을 많이 갖게 된다”며 “주전 경쟁의식을 주입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몰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김 코치는 지난주에도 “골키퍼의 실점을 놓고 계속 논쟁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라며 ‘이운재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코치는 그러나 “월드컵에 나설 3명의 골키퍼 엔트리를 놓고 고민 중”이라며 아직 확실하게 엔트리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표팀에는 경험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 혹시라도 주전이 다치면 공백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운재와 정성룡으로 굳어지는 골키퍼 주전-백업 시스템에서 경험 많은 제3의 골키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지가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상황. 하지만 김 코치는 “강원의 유현 골키퍼도 예전에 눈여겨봤던 선수”라며 말을 돌렸다. 2002년 한일월드컵 때도 골키퍼 코치를 맡았던 김현태 코치가 월드컵 골키퍼 최종 3인방을 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맨유 박지성이 11일(한국시각) 영국 블랙번 이우드 파크에서 열린 블랙번과 2009~2010시즌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블랙번의 골 기벳과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성 24분 교체출전 맨유, 블랙번과 무승부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교체 선수로 투입돼 24분을 뛰었으나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고 맨유도 승점 3점 사냥에 실패했다.

박지성은 11일(한국시각) 영국 블랙번의 이우드 파크에서 열린 블랙번과 2009~2010 시즌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0으로 팽팽하게 맞선 후반 21분 공격수 페테리코 마케다를 대신해 그라운드에 나섰다.

맨유는 블랙번과 공방 끝에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답합’ 공동 조사위 구성

2010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드러난 ‘이정수 외압’ 사건과 지난해 대표선발전 ‘짜짜미 파문’의 진상을 조사하러는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대한빙상경기연맹 공동조사위원회가 인적구성을 끝내고 14~23일까지 열흘 동안 활동을 시작한다.

빙상연맹은 12일 “문화부와 체육회, 빙상연맹 3개 단체가 협의를 통해 공동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라며 “빙상연맹 김철수(대구빙상연맹회장) 감

사자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5명으로 이뤄진 조사위원회는 김철수 위원장을 포함해 문화부 1명, 체육회 1명, 빙상연맹 1명, 변호사 1명 등 총 5명으로 이뤄진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체육회의 김용 감사실장이 투입됐고, 문화부에서는 감사실 근무 경력이 있는 정준희 체육정책과 사무관이 합류했다. 또 오영중 변호사가 외부 인사로 영입됐다. /연합뉴스

3점슛 라인 등 틀 바꾸고 귀화 혼혈선수 등장 변화와 실험의 시즌... 신선한 코트

2009~2010 KCC 프로농구 결산

울산 모비스의 통합 우승으로 11일 막을 내린 2009~2010 KCC 프로농구는 변화와 실험의 시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귀화 혼혈 선수가 처음으로 코트에 등장했고 외국인 선수 제도도 두 명 보유에 한 명 출전으로 바뀌었다.

시즌을 앞두고 3점슛 거리가 6.25m에서 6.75m로 멀어졌고 바스켓을 중심으로 1.25m 반원 구역을 노차지(No Charge) 구역으로 설정해 공격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내리도록 했다. 또 페인트 존도 사라

리풀에서 직사각형으로 바뀌었다.

먼저 귀화 혼혈 선수가 전력에 가세하며 전체 판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창원 LG 문태영은 프로농구 사상 최초의 국내 선수 득점왕에 올랐고 전주 KCC 전태풍도 팀을 챔피언결정전까지 끌어올리며 해재 감독으로부터 “내가 전성기 때보다 낫다”는 칭찬을 들었다.

서울 삼성 이승준 역시 ‘빅맨’으로 가능성을 인정받아 다음 시즌을 기약하기 충분한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선수 제도가 두 명 보유에 한 명 출전으로 바뀌면서 국내 선수층이 탄탄한 팀이 이득을 봤다.

정규리그 전체 판도는 사실 재미가 썩 있는 편은 아니었다.

상위 6개 팀과 하위팀의 격차가 너무 일찍 크게 벌어져 순위 경쟁이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즌 마지막까지 정규리그 우승을 놓고 모비스와 부산 KT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이 재미있었다.

많은 변화 속에 볼거리가 늘었지만 신종 플루의 여파로 관중은 줄었다. 정규리그에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지난 시즌 296경기에서 131만 972명(평균 4천329명)보다 14.5% 감소한 111만 9천838명(평균 3천848명)이 들어왔다. 변화가 많았던 이번 시즌을 거친 프로농구가 다음 시즌에는 어떤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서게 될지 기대된다. /연합뉴스

영광여중 김소임 ‘태권왕’ 등극

전국종별태권도 미들급 우승

‘태권소년’ 김소임(영광여중)이 첫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소임은 최근 구례실내체육관에서 막을 내린 2010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중부 미들급 결승에서 황혜주(오정중)를 맞아 앞돌려차기와 뒤차기 등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선보이며 황혜주를 4-2로 제압하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특히 김소임은 첫 출전 대회에서 정상에 오를에 따라 남은 대회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01년 창단한 영광여중 태권



도부에게도 첫 금 선물을 안겨준에 따라 그의 미는 더욱 크다.

영광초 4년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김소임은 오른발 앞돌려차기와 주특기로 현재 소년체전 전남대표로 1차 선발된 상태이다.

여중부 웰터급 경기에선 정술지(여천중)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남중부 경기에선 김민규(여수중)가 라이트헤비급 은메달, 이동진(법성중)이 라이트웰터급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서승원기자 svseo@kwangju.co.kr

대한항공 김연아 후원 연장

대한항공은 12일 공항동 본사에서 김연아 선수에게 1년 동안 후원 기간을 연장하는 중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양호 회장은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올림픽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준다면 동계올림픽을 평창으로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멋진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후원 연장에 따라 김연아는 내년 3월까지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시 대한항공이 취항하는 전 노선에서 일등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부모와 코칭 스태프 등 5명에는 비즈니스석이 제공된다. /연합뉴스



48세 윌리엄스 헤비급 챔프됐다 윌리엄스 48세의 미국 프로복서 에반더 윌리엄스(왼쪽)가 지난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WBF 헤비급챔피언전 프랑소아 보타(남아공)와의 경기 4라운드에서 주먹을 주고받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윌리엄스는 8회 TKO로 이기고 챔피언에 등극했다. /연합뉴스

영암서 전국 산악자전거대회

17~18일 백룡산·활성산 일원

제2회 월출산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가 17일부터 이틀간 영암 백룡산과 활성산 MTB코스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116개팀 1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그간 닦아온 기량을 펼친다.

대회 첫날인 17일에는 마니아층을 대상으로 20km 오르막길의 힐라이밍 대회와 2km 내리막길의 다운힐 경기가 열린다. 18일에는 동호인 모두 참가할 수 있는 헬린저 대회(40km)의 개인전과 단체전이 각각 진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백룡산과 활성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신규코스를 개설해 명실상부한 메이저급 대회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아이엘리시아 LIGHT HAVER

고품질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용량)

- 점심 (11:00~14:00) : 1000원
- 저녁 (17:00~21:00) : 1500원
- 뷔페 (11:00~21:00) : 2000원

062)671-1199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3동 388-1번지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숙명(宿命: 타고난 사주)은 바꿀 수 없으므로 이름(=운명)을 작명 개명하여 운명(運命: 인생을 운전하는 것)을 개척하십시오.

社団法人 星谷傳統文化研究會

062)227-2356, 010-7671-5623